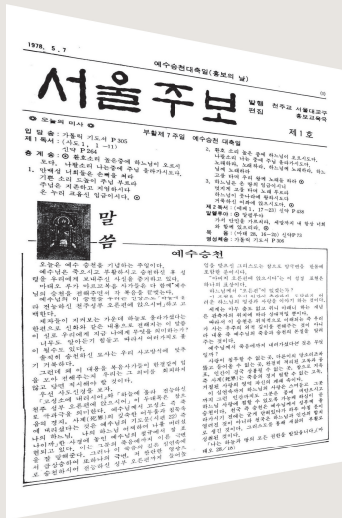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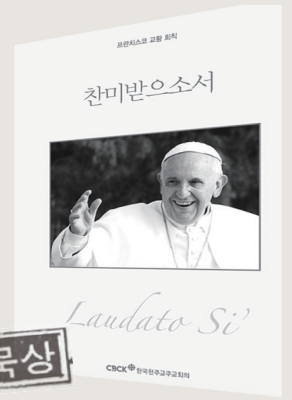


응답하라 1978



환경문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물의 묵상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우리의 집,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중에서)

조선 후기의 풍자적인 인물, 봉이 김선달에 관한 이야기는 어렸을 적 한 번은 들어 봄 직한 이야기죠? 어린 시절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재미있고, 당시 사회를 풍자한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을 사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공기처럼 흔한 물을 돈을 주고 마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해외여행이 어렵던 1970~80년대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유럽에는 맥주보다 물이 더 비싸다고 했을 때 어디 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죠. 1974년 개봉한 ‘맹물로 가는 자동차’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맹물로 자동차가 간다고?” 하며 제목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습니다.



당시의 톱스타들이 나왔던 로맨스 영화 ‘맹물로 가는 자동차’의 한 장면(이형표 감독)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수소 자동차가 곧 상용화가 된다면, 맹물로도 자동차가 간다는 말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구 온난화 문제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역시 ‘공기’와 ‘물’입니다.

1979년 7월 1일

서울주보의 3면을 보면 ‘물의 묵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옵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성경 안에서의 물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주보 내용을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

1979년 7월 1일 서울주보 3면

“생활 속의 물”
이 지구 표면에 물처럼 풍부한 것이 없다. 우리 이 물을 세가지 형태를 통해 보고 있다. 액체로서의 물, 수증기, 얼음의 형태이다.
이물은 액체의 상태에서 온갖 식물의 50~70%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간의 신체도 70%가 이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물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명을 부지해 가는데 빵보다도 물이 더욱 중요하다. 북음에도 중말에 이르러 의인으로 대접받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고 칭찬하신다.
“생과 死를 가져오는 물”
물은 확실히 삶의 근원을 이루고 힘을 부여한다.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어머니의 자궁속의

